

자살에 관한 문화적 학습 및 재생산의 경로:

중국 농촌 여성의 사례*

이현정**

“자살은 그들[중국 농촌 여성들]에게 있어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해결책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상류층의 자살이 영예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현대 농촌 여성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의 개인적 행위에 더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Wolf 1975: 112).

1. 문화적으로 학습된 행위로서의 자살

사회과학자들은 특정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이며 행동 규범 및 실천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가에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 논문(Lee 2009)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관심사 일부를 이후에 고민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이 자리를 빌어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시고 꼼꼼히 보완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가족, 학교, 국가, 종교 기관, 매스컴 등등 다양한 조직과 제도, 그리고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 학습 및 전승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관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학자들은 비공식적이고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성원들의 문화 학습이 제도적이고 담론적인 방식만큼이나 집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지적해왔다(예컨대, Bourdieu 1984; Willis 1981; Goffman 1979).

그렇다면, 자살은 어떠한가? 일단 자살 행위가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된다는 주장은 냉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인간 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첫째, 자살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자살률을 10만 명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든지, 대부분의 종교와 일부 법 문서에서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자살의 일탈적이고 비일상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둘째, 자살은 여타 인간 행위와 비교할 때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자살은 행위의 물리적 주체가 개인 자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 결단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자살이 갖는 비일상적이고도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살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태도는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의 문화를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자살 행위 및 자살자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에서보다 ‘(비정상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자살이 언제나 ‘비정상적’인 개인에 의한 일탈적 행위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 자살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자살률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논의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자살자가 전혀 없었던 사회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어느 정도’의 자살자 발생은 그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지 않으며,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비정상성’을 드러낼 뿐이다(Maris, Berman, and Silverman 2000). 그러나 만일 자살자의 인구 비율이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관심은 이제 개인이 아닌 사회로 옮겨간다. 즉, ‘높은’ 자살률은 더 이상 ‘개인’의 비정상성이 아닌 ‘사회’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전환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으로서의 ‘어느 정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논의의 지평 및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뒤르켐(Durkheim 1979[1897])이 사회적 통합 및 규제의 정도와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을 서술하면서, 사회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설령 각각의 자살이 개인적 원인 및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 내지 문화적 특성은 개별 성원들의 자살 선택, 나아가 전체 사회의 자살률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자살이 꼭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문화적 행위’로 설명하는 시각은 행위의 의미에 관심을 가져온 인류학 내에 종종 존재해왔다. 이 관점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의 자살률만이 사회과학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뒤르켐과는 대조적인 입장으로, 오히려 인간 행위의 해석적 측면을 강조했던 베버의 학문적 전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Weber 1978[1956]). 예컨대,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966[1926])는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근친상간

1) 한 예로, WHO(2010)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45년간 자살률은 전 세계 60%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살률 증가는 심각하게 사회 문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초국적 의·약학 기업의 경영 전략 속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개인들에게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나 배우자 부정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엄한 처벌 대신 사회적 용인을 받는 방법으로서 자살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스(Jeffreys 1952)는 아프리카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살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그러려는 의도가 있었던 사람을 향한 복수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행위 속에는 육체적 죽음이 대신 영적인 복수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문화적 해석이 내재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퍼스(Firth 2000[1967])는 티코피아 섬에서는 자살 의지의 공적 선언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고발하고 그 당사자를 처벌하게끔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또 올프는 서양인의 자살과 달리 중국인의 자살은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최후의 반항”이며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공적 비난”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Wolf 1975: 112).

이처럼 자살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일탈적인 방식이고 개인적 결단에 의한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 및 문화적 의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문화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일 자살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쳐 온 사회적 특성 내지 위협 요인이 대체로 존속하고, 자살이 상징하는 문화적 의미 역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자살은 특정 상황 속에서 선택가능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집단 성원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상황과 행위 규범 및 의미 체계가 개인이 자살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면, 자살은 더 이상 몇몇 ‘비정상적’인 소수에 의해 행해지는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특정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일종의 ‘정상적’인 문화적 실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한 중국 농촌 지역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 중 한 가지는 중국에서 자살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 재산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비난·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자살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 않은, 오히려 꽤 익숙한 일상적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마을 및 주변 지역에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서너 사람의 자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 중 한 두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주민들이 기억하는 자살 사건들은 대개 여성에 의한 것들로, 이는 마을에서 자살을 여성적 행위로 간주하는 지역적·문화적 해석과 일치하고 있었다.²⁾

중국 농촌 사회 내 여성 자살의 빈번함에 관해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다양한 설명 혹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 잔존하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라든지, 개혁 개방 이후 농촌 여성의 변화된 성역할 및 정체성, 정부의 경제 개혁으로 인한 도농 간의 격차나 자살을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해 온 중국 문화의 특징, 심지어 여성의 우울증 및 기타 정신적 고통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의료 시설의 낙후함 등등이 농촌 여성 자살을 빈번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 여성이 처해 있는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이에 관해서는 Lee 2009 참조), 자살 행위가 단순히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살

2) 이 지역에서 자살은 대개 “속 좁고” “무지하며” “알을 내다볼 줄 모르는”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즉 부정적인 여성성과 연관된 행위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은 성별화된(gendered)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곧 여성에 의한 자살로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마을에서 남성 자살이 여성 자살보다 적을지언정 결코 희소하지는 않다. 오히려 자살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맞서 싸워야 하는”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는 문화적 개념으로 인해, 남자에 의한 자살은 종종 예외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되는 경향이 있다.

에 관한 문화적 학습이 이루어지는가를 중국 농촌 여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의 경로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무엇보다 자살이 중국 농촌 지역에서 일종의 ‘금기’로서 담론적으로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마을에서 자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사적 공간 속에서도 매우 드물게, 그것도 은밀한 방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다른 가족의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태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살이 설령-울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농촌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몇 가지 되지 않는 해결 방식 중 하나로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문화적 학습은 공식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고려하는 개인들은 자살에 관한 문화적 의미 및 행위 선택의 기준들을 도대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일까? 본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비언어적·신체적 경험이 자살에 관한 문화 학습 및 재생산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2. 문화적 학습과 재생산의 매개체이자 주체로서의 몸

자살에 관한 문화적 학습 및 재생산에 관한 탐구는 개개인이나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사회 문화와 ‘몸’을 통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자살은 자신의 ‘몸’으로써 자신의 ‘몸’을 부정하는 독특한 인간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과학 내의 몸에 관한 연구 경향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왜 중국의 자살 연구에 있어서 몸이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성과 정신을 증시한 근대 학문의 전통 속에서 서구 및 국내의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몸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설령 연구되더라도 몸을 도구적 측면이나(예컨대, 작업장에서의 노동 방식) 인구 재생산 및 질병과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나 치료의 목적 속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설링 1993; 터너 2002 참조). 그나마 인류학자들은 체질인류학 내에서는 꾸준히 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예컨대, 박순영 2006), 사회문화인류학에서도 타지에서서의 ‘낯선’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이 몸이 갖는 상징적 의미 및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더글라스 1997; Blacking 1977; Turner 1980; 김광익 1996; 김세건 2000).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갑작스럽게 몸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학문적으로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Foucault 1977, 1978). 푸코는 몸이 단순히 인간 행위의 물질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각인되는 장소이자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 그리고 주체성의 물질적 현현(顯現)임을 강조했다. 이후 사회적 구성물이자 제한된 행위성의 담지자로서 몸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적 접합-특히 정신분석학 및 여성주의 이론의 영향 속에서 몸에 각인된 사회문화적 힘 및 신체적 주체성에 주목해왔다(Butler 1993; Bordo 1993; Grosz 1994; Lester 2005; 김은실 2001).

그러나 인간이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이자 매개이며 수단으로서의 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도구적, 상징적, 혹은 담론적 실체 이상이다. 특히 자살처럼 사회적·언어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가 여전히 사회 성원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행위로서 학습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은 문화 습득에 관한 인류학 연구에 있어서 몸을 매개로 하는 경험과 자기화의 과정, 즉 체현

과정(embodiment process)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 겸 인류학자인 부르디외가 “사회적 정보를 내재한 몸(the socially informed body)”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행위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몸을 개념화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Bourdieu 1977: 124).

알제리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부르디외는 공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지식 전달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문화적 정보들은 오히려 일상적 생활 속에서 체현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77, 1984). 일상적 경험이 문화적 학습의 계기를 만들어 낸다면, 몸은 시각, 청각, 촉각 등등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고 문화적 정보를 획득하게끔 하는 핵심적인 매개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정보를 내재한 몸은 더 이상 단순히 경험의 매개체가 아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몸을(적어도 일부분을) 도구로 쓰지 않고서는 외부 세계와 결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듯이(Merleau-Ponty 2007[1947]), 이제 문화적 정보를 내재한 몸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행위를 생성하는 주체로서 역할하기 때문이다(Csordas 1994).

그렇다면, 이처럼 문화적 학습과 재생산의 매개체이자 주체로서의 몸은 중국의 자살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본 논문의 서두에 인용한 울프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농촌 사회에서 여성 자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례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여성 자살률을 기록해왔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이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바는 없지만, 이러한 빈번한 여성 자살의 특징은 단순히 최근 10여 년 간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 직간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계 자료들은 190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는 적어도 약 백 년의 기간 동안 여러 비도시 중국 문화권 지역에서 비슷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자살률

을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Yap 1958; Wolf 1975; Pritchard 1996; Ji, Kleinman, and Becker 2001; Phillips, Li, and Zhang 2002). 그러나 빈번함의 영향으로 중국 여성의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빈번한 여성 자살이 여성 집단 내의 자살 발생을 빈번하게 만든다”와 같은 동어 반복이거나 여성 집단 내의 ‘모방 효과’를 강조하는 단순한 주장처럼 생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농촌 여성들을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함부로 내다버리는 존재들로 묘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홍미륵게도, 연구자가 거주했던 중국 마을의 해계모니적 지역 담론에 따르면, 자살은 “여자들이 무지하고 속이 좁으며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나까 자기들도 그저 아무 때나 목숨을 쉽게 내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백 년 간에 걸쳐 다양한 중국 문화권의 지역에서 보고되는 농촌 여성의 높은 자살률이 단순히 ‘생각 없는 개인’에 의한 ‘모방 행위’일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떻게 사회적인 금기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자살의 빈번한 발생이 궁극적으로 같은 공동체 내의 여성들에게 자살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행위로서 인식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학습 및 재생산의 매개체이자 주체로서의 몸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떤 현상의 빈번함은 몸이 경험하는 특정한 환경적 조건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비록 자살이 중국 농촌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공식적인 학습의 통로가 부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가까운 가족, 친척 및 이웃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자살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화적 행위로서 체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 내의 빈번한 자살 발생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는지 연구자가 조사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 대상 개괄 및 연구 방법

중국 정부가 자살률을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중국 사회는 높은 자살률 및 이례적인 자살률 성비(性比)로 인해 전 세계 학자들과 보건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왔다(예컨대, WHO 1999). 어떠한 통계 자료 체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중국의 자살률은 대략 10만 명 당 20~35명으로 보고된다. 이는 세계 평균(10만 명 당 16명)에 비해 약 두 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중국의 자살률은 성비 및 지역적 차이에 있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19세기 말 뒤르켄이 『자살론』에서 남성 자살률의 공식적·통시적 우세를 논한 이후(Durkheim 1979[1897]), 중국은 세계 역사 상 거의 유일하게 여성 자살률이 남성 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약 세 배 높다는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Phillips, Li, and Zhang 2002³⁾). 한편, 통계 자료의 성·연령·지역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전체 연령을 통틀어 도시 여성(8.3)

〈표 1〉 중국의 성·연령·지역별 인구 집단의 자살률, 1995~1999

(단위: 명, 인구 10만 명 기준)

연령	도시			농촌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5~34세	9.5	10.8	10.2	22.8	37.8	30.3
35~59세	9.0	7.5	8.3	27.8	31.3	29.5
60~84세	7.5	16.1	16.7	88.0	77.9	82.8
전체	8.3	8.3	8.3	23.9	30.5	27.1

출처: Phillips, Li, and Zhang (2002)

- 3) 서구 의학 훈련을 받은 세 명의 정신의학자가 중국 자살에 대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여 보고한 이 논문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의학 잡지 *Lancet*에 실렸으며, 현재까지 중국 자살에 관한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2〉 중국의 연간 성·연령·지역별 자살자 수, 1995~1999

(단위: 명)

연령	도시			농촌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5~34세	5,703	6,231	12,008	37,932	59,884	98,412
35~59세	4,510	3,888	8,047	41,444	43,680	85,146
60~84세	1,020	2,348	4,769	42,300	38,445	80,664
전체	11,233	12,467	24,824	121,677	142,008	264,222

근거 자료: China 2000 Population Census (China Data Online 2009); Phillips, Li, and Zhang (2002).

은 도시 남성(8.3)과 같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반면, 농촌 여성(30.5)은 농촌 남성(2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5~34세의 연령층에서 농촌 여성(37.8)과 농촌 남성(22.8) 간의 자살률 격차는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1〉은 농촌의 노인 집단, 특히 남성 노인 집단의 자살률(88.0)을 가장 높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농촌의 남성 노인들이 자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표 1〉은 해당 연령에 속한 인구 10만 명 당 기준으로 측정된 자료로서, 상대적으로 생존 인구가 적은 노인 집단의 경우 그 숫자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표 2〉는 중국의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같은 연도 기간 동안에 인구 집단 별 실제 자살자 수를 보여준다. 〈표 2〉에 따르면, 앞서 〈표 1〉에서 남성 노인 집단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숫자상으로는 15~34세 농촌 여성이 가장 많은 자살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5~34세 농촌 여성의 빈번한 자살은 중국 사회의 매우 특이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자살 연구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남아선호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수(2010년 현재, 약 3천 7백만 명 우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자살자의 수적 차이는 각각의 인구수를 고려할 때 실제로 더 큰 격차를 뜻할 수 있다.

연구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개월간 현지 조사한 하북성의 중국 마을에서도 여성의 자살은 남성 자살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숙한 공동체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는 하북성 내의 총 4개의 마을 및 같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NGO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의 대부분은 1년 2개월 동안 거주했던 전강촌(前江村, 가명)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구술 생활사,⁴⁾ 텍스트 분석 등 총 다섯 가지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총 6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살 및 성별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역적 개념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된 자료는 마을 사람 남녀 각각 25명, 37명⁵⁾으로부터 얻은 심층면접 자료와 전강촌 및 다른 조사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자살 시도자 12명에 대한 구술 생활사 자료를 통해 얻었다. 면접 및 구술 생활사 녹취는 연구자가 하숙하고 있던 마을 주민의 집이나 피면접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접은 연구 목적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사전 동의를 절차로 거쳐서 수행되었다.

연구자가 장기간 머물며 조사한 전강촌은 하북성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당시 농민 1인당 연간 평균

4) '구술사' 내지 '구술 생애사'라는 표현이 인류학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구술 생활사'(혹은 oral life story)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녹취의 내용이 구술자의 전체 생애를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사의 맥락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기보다는 자살과 관련된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 원래 심층면접은 남녀 각각 25명으로 계획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여성 주민들이 하나 둘 자발적으로 연구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여성 면접자의 수가 늘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찾아 온 여성들은 오히려 연구자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민이나 답답함을 소문이나 곡해의 우려 없이 편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연구자와의 면접을 일종의 '심리상담'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순수입이 2,000위안(2006년 기준, 한화 약 25만 원)에 못 미치는 가장 빈곤한 몇 개 현(縣, 촌의 상급 행정 단위) 중 하나에 속해 있다(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전강촌의 인구는 약 2,800명이며, 총 600여 가구로 구성되어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토지 경작권을 부여받은 농민이지만, 농작물 경작만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을 근처에 위치한 탄광이나 가까운 도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부부가 함께 옷이나 두부, 잡화 등과 같은 물건을 가까운 5일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입을 늘린다.

자살은 전강촌 및 주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익숙한 사건으로, 만나 본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사람이 자살 시도한 이야기를 최소 한 사람 이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 곳 전강촌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약 사 오십 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 마을 내 한 거리에서만 지난 6년 동안(1998년부터 2004년) 무려 25명이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7명 자살 사망자라는 숫자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마을 주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연간 자살률로 환산해보면 10만 명 기준 41.7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이다. 이 간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렸지만, 25명의 자살 시도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하였다.

한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강촌에 거주하는 남자 주민 중 총 6명이 자살 시도를 하였고 그 중 2명이 사망했으며, 여자 주민의 경우 총 10명이 자살 시도를 하였고 그 중 2명이 사망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남성의 연령대는 20대가 1명, 30대가 1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가 3명인 반면, 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1명, 30대가 6명, 그리고 40대가 3명으로 보다 젊은 연령대에 속해있었다. 이 자료는 연구자가 만날 수 있었던 소수의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의 자살 시도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드러낸다.6)

〈표 3〉 2004년 현(縣)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남녀 자살 시도자의 수

(단위: 명)

	남자	여자	총계
6월	2	13	15
7월	5	19	26
8월	8	9	17
9월	4	11	15
총계	19	52	71

전강춘 주민이 자살 시도를 할 경우 만일 일찍 발견된다면 운송되는 현(縣) 병원 응급실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여성 자살 시도자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와 관련하여, 〈표 3〉은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병원 응급실에 자살 응급처치를 위해 실려 왔던 자살 시도자의 남녀 수 차이를 보여준다. 월별로 남녀 비율에 차이를 보이지만,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자살로 인한 여성 입원 환자 수가 남성보다 많으며, 총계에서도 여성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연구자가 거주한 중국 농촌 지역에서의 여성의 자살 행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 자살 행위의 빈번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

-
- 6) 일반적으로 서구 학문에 기반한 자살 연구에서 사망으로 귀결된 자살(completed suicide)과 생명을 보전한 자살 시도(attempted suicide) 사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몇 가지 이유에서 두 가지를 논의 상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먼저, 중국 농촌의 경우 대부분의 자살 행위가 농약이나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독약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 여부의 결과가 사실상 대부분은 얼마나 빨리 이웃이나 가족에게 발견되고 병원으로 수송되는가 하는 일 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서구인들처럼 행위자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크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농촌 사람들에게 자살과 자살 시도는 언어적으로도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살자(自殺者)는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이처럼 서구에서 자살은 그 행위의 결과가 죽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고 언어적으로도 엄격하게 분리되어 사용되는 반면, 중국인에게 있어서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다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더 두는 경향이 있다.

로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문화적 학습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연구자가 전강촌 및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스무 명 남짓의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들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가지는 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가족, 친척, 친구의 자살 경험을 통해 자살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선택가능한 행위로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까운 지인의 자살 경험은 없지만 공동체 내의 빈번한 여성에 의한 자살 행위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살을 특정 상황에 대한 문화적 반응 양식으로서 체현·실천하게 되는 경우이다. 앞으로 두 장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가족, 친척, 친구의 자살 경험

자살 연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자인 데이비드 레스터는 그의 책 『학습된 행위로서 자살』(원제: *Suicide as a Learned Behavior*)에서 자살은 “스트레스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며 … 자살이라는 방법의 선택은 어릴 때의 경험과 문화적 태도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주장한다 (Lester 1987: vii). 즉, 레스터에 의하면 자살은 어릴 때의 경험과 문화적 태도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개별 성원에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스터의 주장은 연구자가 조사한 중국 농촌 마을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어릴 적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어떻게 성별 간에 다르게 구조화되는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살이 주로 여성적 행위로서 재생산되고 있는 중국 농촌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먼저, 심층면접 자료는 여성 자살 시도자 중 절반 이상이 소아·청소년기 시절에 어머니나 가까운 여성 가족, 친척,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여성의 자아 존중감 및 자살에 대한 사고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특히, 아이 양육을 오로지 어머니의 돌봄 노동에 기대고 있으며 사회 복지 시설 및 자원이 거의 전무한 중국의 가난한 농촌 사회에서, 생물학적 어머니가 없는 아이의 삶은 거의 예외 없이 실제적인 고통과 궁핍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 경험하는 어머니의 자살은 가난한 농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더 없는 충격과 상처로 각인되며, 특히 여자 아이의 경우 이후 학업 기회, 혼인 시장 및 결혼 생활 속에서 이로 인한 반복되는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성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그림자를 헤어나기가 어렵다.

다음 쑤징의 이야기는 과거에 겪은 어머니 또는 여동생의 자살 경험이 이후 본인의 자살에 관한 생각 및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드러낸다. 쑤징은 2006년 당시 51세의 여성으로, 당시 남편, 아들, 세 살짜리 손녀와 살고 있었다. 아들은 1년 전에 이혼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가 쑤징과의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집을 나갔다고 한다. 쑤징은 우울증으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분노와 답답함이 항상 가득하다. 그 분노는 대개 집을 나간 며느리와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는 올케, “집을 나간 며느리를 닮아 말을 듣지 않는” 손녀, 그리고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뜬 어머니에게 향해있다. 쑤징은 자신의 삶 속에 반복되는 불행이 다 나쁜 운을 타고 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쑤징은 자주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심지어 “저 조그만 손녀만 아니라면,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다음은 쑤징이 전하는 그녀 어머니의 자살에 관한 기억이다.

[사례 1] 쑤징의 이야기

난 일생 동안 한 번도 좋은 운을 가진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에 걸려 있었지.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나를 안아다가 저 멀리 버려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머니를 찾고 보니 내가 없더라

는 거야. 그래서 나를 찾았는데, 이전에는 늑대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훔뜨 버텨가지고는 늑대가 먹으라고 바위 위에 올려놨더라. 늑대가 날 먹지는 않았지만 … 어머니는 때때로 산의 암벽을 타고 오르곤 했어. 난 그때마다 혹시 어머니가 떨어져 죽을까봐 큰 소리로 내려오라고 소리쳤지. 그러면 어머니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야. 결국 우리 어머니는 내가 열 세 살 때 살구씨(杏仁)를 먹고 자살했어. 그 때부터 난 학교를 관두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지 …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같이 싸우며 두들겨 패는 바람에 어머니가 정신병이 생겼다는 거야. 내 기억에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우긴 싸웠어. 하루는 어머니가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목을 매달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내가 쫓아가서 보니 밧줄이 몇 번 접혀있긴 한데, 아버지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 보더라구. 그런데 어머니는 그 때 집에서 맹세를 했었다나봐. 만일 아버지가 죽으면 앞으로 무슨 말도 하지 않겠다. 만일 죽지 않으면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겠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사흘 동안 정말 아무 것도 먹지 않았어. 심지어 물도 한 방울 입에 안 댔어. 그러더니 사흘이 지나자 바로 자살한 거지.

쑤징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정신병이 정확히 어떤 병이며 어떠한 계기에 의해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쑤징의 말에 따르면, 쑤징의 어머니는 포판결혼(包辦結婚)⁷⁾에 의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쑤징의 아버지와 혼인한 후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 특히 쑤징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 4형제 중 막내로, 집 안에는 총 6명의 형과 형수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가장 어린 쑤징의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결국은 화가 난 쑤징의 어머니가 창문을 깨부수어 유리 조각으로 온 집안을 긁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 이 이야기는 쑤징 어머니의 불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쑤징 어머니와 쑤징 두 여성의 불행에 관한

7)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의 뜻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식을 혼인시키는 것. 1949년 모택동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선포된 신혼인법(新婚姻法)은 포판결혼을 “봉건적 악습”에 포함시켜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혁명 이후 더 이상 포판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혼인 방식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야기이다. 쑤징의 이야기에 따르면, 쑤징의 어머니는 부모에 의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후, 가족과의 불화 속에서 정신병을 얻게 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겨우 열 세 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쑤징은 이후 계속되는 자신의 불행-어려서부터 온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가난한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고, “못된” 며느리가 들어오고, 결국 그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서 손녀를 키워야 하는 등등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정신병으로 자살한 어머니를 둔 불운한 인생을 타고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쑤징은 현재 어떠한 일에도 의욕이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느낌 속에서 종종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쑤징은 혹시 자신도 결국 유전적으로 어머니처럼 정신병에 걸려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한편, 연구자는 조사 마을 주민인 리화를 2004년 북경에 있는 한 NGO에서 주관하는 농촌 여성을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다. 리화는 30대 중반의 결혼한 여성으로, 8년 전 당시 25살의 여동생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사실, 리화의 가족 내에 여동생이 첫 자살자는 아니다. 리화의 어머니는 리화가 일곱 살, 여동생이 다섯 살, 남동생이 한 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리화네 가족은 아버지의 형제 다섯 명 가족이 모두 모여 살았는데, 동서 시간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리화의 어머니는 동서 간 다툼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택했다. 다음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정신과 전문 간호사와 리화의 상담 내용의 일부분이다.⁸⁾

8) 상담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단 상담의 형태를 띠고 약 50여 명의 자살 시도자, 자살자 가족, 지역 의료 관계자 및 지역 부녀연합(婦女聯合) 간부가 모여 앉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은 대부분 정신과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가끔 NGO 활동가인 사회자나 기타 참여자의 발화에 의해 중단되거나 질문이 농촌 맥락에 맞게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례 2] 리화의 이야기와 상담 내용

간호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그 때가 7살이었으니까 이미 다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리화: 그렇죠, 하지만 농촌은 아무래도 도시와는 달라요. 지금 같지도 않고요. 지금 같으면 7살이면 사정을 다 알겠지만, 당시엔 아는 것들이 아주 적었죠.

간호사: 당시 어머니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땠던가요?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리화: 예, 알고 있었죠.

간호사: 당시 마음이 어땠어요?

리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살한 그 날 밤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이 나요. 그 전 일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긴 밤이 계속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뚜렷하게 기억나요. 아마 그 때부터 저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이해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어요. 어린 남동생은 할머니 집에 보내서 키웠는데, 그래서인지 언제나 집을 그리워했어요. 저와 여동생은 계모랑 살았는데, 저희를 잘 대해주지 않았죠. 제 여동생은 6살 때부터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 때 전 8살이었으니까 좀 컸죠. 그래서 계모가 하라고 해도, 저는 안한다 하고 버텼는데, 동생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루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우리 농촌에는 아궁이가 아주 높거든요. 여동생은 아직 키가 닿지 않으니까 선반을 받쳐 놓고 불씨를 모으는데, 이럴 때면 우리 농촌에서는 여러 사람이 서로 몸을 맞대고 몸에서 나는 열로 그냥 맨바닥에서 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겨울이라 저와 여동생이 동상에 걸려 파랗게 됐어요 ...

간호사: 그러니까, 본인과 여동생은 서로서로 감정적으로 가장 친한, 무슨 말이든 다 나눌 수 있는 사이였던 거죠?

리화: 예.

간호사: 여동생이 세상을 뜨고 나니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리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낮에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그저 집에만 있고 싶고, 그저 어디든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기분을 풀라고 하는데도,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같이 놀자, 기분을 쉼신하자 하는데도, 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남들까지도 맘을 괴롭게 만들었지요.

간호사: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리화: 약 4, 5개월 정도요. 그 때, 그러니까 10월 4일에 여동생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이 되면서부터는 좀 기분이 나아졌어요 ….

…

사회자: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동생의 자살로 인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리화: 여동생이 죽고 나서 마음속에 가득 드는 생각이, 여동생이 그 때 진실로 마음이 편치 못했구나, 그리고 나도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하는 거죠. 어쩔 때는 어떻게든 살아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냥 죽어 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또 잠시 지나면, 아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자, 또 잠시 지나면 죽어버릴까, 이런 식이에요.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진실로 죽고 싶고,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난 엄마가 없었는데, 또 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도록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든 이 집에서 살자, 잘 살아보자, 하다가도 갑자기 죽은 두 사람이 너무 붙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

간호사: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야 할 목표가 아직 많지 않아요?

리화: 그렇죠. 재작년부터는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은 마음 이쪽이 보다 많아졌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두 사람이 다 없어요. 아버지는 결코 어머니와 같을 수가 없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같은 처지 아래 자라 온 리화와 여동생 사이는 매우 각별했다. 두 사람은 여동생이 자살하기 전까지 사사건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여동생이 자살하던 그 날 저녁, 당시 가족들을 만나러 친정 마을에 잠시 다녀온 리화는 이미 혼인한 몸으로 아이를 시댁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야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리화는 자신이 만일 그 날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루 친정에 묵었다라면 여동생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으로 오랜 기간 괴로워했다. 여동생의 자살은 혼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아버지는 동북 사람⁹⁾이고 직업이 마땅치 않다고 반대했던 것이

9) 연구자가 거주한 하북성 농촌 마을에서는 중국 북동부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 존재했다.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동북인”(東北人)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은 동북인들이 “거칠고(屈強), 쉽게 흥분을 잘

다. 심지어 결혼식을 약 한 달 앞두고 친구들의 축하 잔치가 마련된 그 날, 아버지는 여동생 앞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절대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니 그 남자와는 결혼할 꿈도 꾸지 말라”면서 호통을 쳤다. 아버지의 호통을 들은 뒤 친구들의 축하 모임에 참석했던 리화의 여동생은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쑤징과 리화, 두 사람의 예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어머니 혹은 가까운 여성 가족에 의한 자살을 경험한 여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 분노, 슬픔을 포함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나아가 우울증 및 자살 시도의 충동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단지 두 사람의 예만 소개하였지만, 적어도 연구자가 거주한 농촌 지역에서 어머니나 가까운 여성 가족, 친척 내지 친구를 자살로 잃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면접한 전체 여성 중의 무려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들 중 한 명¹⁰⁾을 제외하곤 모두 본인 스스로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가까운 여성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자살로 잃은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고백은, 자살에 대한 직간접적 목격의 경험이 어떻게 자살을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 전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덧붙여, 쑤징과 리화의 이야기는 어머니 부재라는 심리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고통의 지난한 과정을 겪는 동안 딸이 어떻게 차별받는 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처입고 우울한 삶의 양상을 재생산해 나가 쉬운가 하는, 중국 농촌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드러낸다. 즉, 자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며 남성차별적인 농촌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삶의 조건으로 인해, 일찍이 자살로 어머니를 잃

하며(脾氣暴躁), 야만(野蠻)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10)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살로 잃은 한 여성은 자살은 “남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특히 자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여성이 보이는 부모의 자살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는 가난한 중국 농촌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은 딸에게 있어 자살에 대한 생각 혹은 자살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5. 무의식적인 체현 과정을 통한 자살 행위의 재생산

1990년대 말, 중국 농촌 여성의 높은 자살률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후, 학자들은 이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의학적 원인과 연관하여 설명해왔다. 한편, 중심 논지와 상관없이, 이들은 농촌 여성의 자살 행위가 대부분 ‘충동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서 지적해왔다(예컨대, CDC 2004).

20여 명의 자살 시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농촌 여성들 스스로도 대부분 자신들의 자살 시도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한다. 즉, 당시의 행위는 “순간적인 결정”이었으며 심지어 “진심으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이후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에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전문가들 및 자살 시도자 본인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농촌 여성의 자살 행위가 대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여성의 자살에 있어 충동성에 대한 강조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간에 궁극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사실들’을 생산해왔다. 즉, 설령 자살 시도자의 고백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충동성의 강조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고를 넘어 담론 상의 그리고 분석 상의 ‘편견’을 양산해 왔다. 첫째, 담론적 차원에서, 중국 농촌 여성 자살에 있어서 충동의 강조는 서구인이나 중국 남성(특히, 도시 지식인 남성)의 자살이 “오랜 숙고 끝에”(after long contemplation)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대비

되면서,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이 ‘인격적인 소양 부족에서 나온 진지하지 못한 행위’라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해 왔다. 결국 충동을 강조하는 담론은 농촌 여성 각자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맥락보다는 농민 여성 주체의 ‘부족한 소질(素質)’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cf. Cohen 1993). 나아가, 이러한 소질 담론에 기반한 자살 예방 정책은 농촌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물질적·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들의 개인적 태도를 바꾸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왔다. 둘째, 분석적인 측면에서, “충동적 자살”의 개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충동 그 자체가 마치 자살 행위를 이끌어 온 주된 심리적 원인인양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어떻게 농촌 여성들이 오랜 고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가?”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인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왔다.

연구자가 거주한 마을과 같이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농촌 지역의 경우, 공동체 성원들은 꼭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통해 자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종종 반복되는 주변 사건들을 통해 자살을 선택 가능한 행위 방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문화적 체현의 과정(process of cultural embodiment)이라고 본다(Bourdieu 1977, 1984). 즉, 비록 중국 사회에서 자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속에서 자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 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살 행위가 선택되어지는 맥락과 구체적 방법 및 효과들을 자신의 신체 안에 각인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자살 사건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한적이고, 나아가 여성의 자살 행위가 남성의 경우보다 사회문화적으로 더 용납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살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능한 행위 방식으로서 체현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농촌 여성의 자살 행위가 갖는 충동성은 이들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는 자질의 미숙함이나 비도덕성과 연관되어 이해될 것이 아니라, 자살이 습득되는 과정의 무의식적인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다음 밍웨이의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촌 여성의 자살 문제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이 사례는 어떻게 한낱 “사소한 문제”가 어떤 농촌 여성들에게는 “끔찍하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들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는 농촌 여성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족 및 공동체 내에서 경험해 온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과 결부되어 있다. 둘째, 이 사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농촌 여성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살을 무의식적이며 즉각적으로 선택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준다. 다음 [사례 3]은 연구자가 밍웨이로부터 들은 본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 3] 밍웨이의 이야기

밍웨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03년 12월 말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다행히 빠른 응급 처치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어머니의 생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안 밍웨이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오리털 잠바를 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밍웨이는 다른 마을 주민에 비해 잘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리털 잠바 선물이 경제적으로 큰 무리는 아니었다. 마을 의사인 남편은 다달이 100위안(2003년 기준 한화 약 1만 5천 원)을 벌고 있었고, 밍웨어도 바닥 깔개를 만들어 매월 200위안 정도를 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현금이 전혀 없었다. 벌어들이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려준 다음이었고, 남편의 환자들은 외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잘못하다가는 어머니의 선물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밍웨이는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남편에게 빨리 가서 환자들에게 외상 빚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이 요구를 거절했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런 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날을 곧 앞두고 이웃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곧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번졌고, 나중에는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선물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

감과 더불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가 난 밍웨이는 집 밖으로 달려 나가 농약을 마셨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안타깝고도 역설적이다. 밍웨이와 남편이 서로 외상빛 독촉에 관한 의견은 달랐지만, 의견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인간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밍웨이는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고, 남편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선량한 마음 씀씀이는 결국 심각한 몸싸움과 자살 행위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거주한 농촌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가 있다. “첫 번째는 울고, 두 번째는 소란을 피우고, 세 번째는 목을 매달아라” (一哭 二鬧, 三上吊).¹¹⁾ 이십대 미만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마을 여성들은 이 문구를 잘 알고 있었다. 이 문구는 여성들에게 가족 내 문제에 직면하여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 문구에서도 언급되듯, 농촌 지역의 여성들에게 자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나타난다. 울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 그래서 안 되면 싸우고, 싸워도 안 되면 결국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의견 차이가 나자, 밍웨이는 똑같은 경로를 밟아 최종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물론 이 단계들은 의식적인 결정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행위 실천의 모습을 띠고 있다.

다음은 밍웨이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2005년 정신과 전문 간호사와 나누는 상담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는 농촌 여성의 자살 선택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함축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 준다.

11) 이 문구는 연구자가 거주한 중국 농촌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살에 관한 담론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례 4] 밍웨이의 상담 내용

간호사: ... 자살을 처음 생각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나요? 어떻게 자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 누군가 자살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밍웨이: 글썄, 뭐라고 말해야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죽음에 대해 계속 생각했구요.

간호사: 불행하다고 느낄 때마다 자살에 대해 생각했다는 말이군요? 제 말이 맞나요?

밍웨이: 불행을 느낄 때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늘 생각했어요.

간호사: 아버지와의 관계가 특별히 각별했었나 봐요, 그런가요?

밍웨이: 아주 좋았죠.

간호사: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누가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있나요?

밍웨이: 당연히 있죠.

간호사: 그럼 자살 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밍웨이: 그럼요, 있죠.

간호사: 독약을 마셨을 때, 하필이면 이 방법을 쓴 어떤 동기가 있나요?

밍웨이: 그 당시에 저는 오로지 아버지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방법을 쓴 이유는 이미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하기를, 병원에서 깨어난 뒤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무엇을 후회한 거죠?

밍웨이: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아직 저한테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간호사: 깨어나서야 이 생각을 했군요. 하지만 농약을 마실 때만 해도 당신은 남편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깨어나자 당신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디서 이러한 자살 방법을 배운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나요?

밍웨이: 아마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간호사: 언제 자살이라는 이 두 글자를 처음 들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마 실제로 이 방법을 쓰기 전에 당신은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독약을 마셨을 때, 남편 앞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밍웨이: 아니요.

간호사: 그럼 당신은 그저 혼자 조용히,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독약을 마셨던 거군요. 그 당시 고통스럽다고 느꼈나요?

밍웨이: 네.

간호사: 남편이 당신을 위해주지 않거나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밍웨이: 둘 다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때문일 거예요.

간호사의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밍웨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자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는 밍웨이가 의도적으로 감추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농촌 여성이 자살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살을 문제 상황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배우게 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여성에게 적절한 태도인가를 가르쳐주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생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반면, 도시에서 자라 농촌 여성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북경의 정신과 전문 간호사는 농촌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부르디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밍웨이의 ‘대답할 수 없음’은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가 중국 사회 내에 담론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속해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Bourdieu 1977).

나아가 밍웨이가 자살 시도의 근본적인 이유를 남편의 태도에서 찾기 보다는 일 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은 농촌 여성의 자살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밍웨이의 언급으로부터 유추해볼 때, 그녀는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또 죽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느껴온 불행의 느낌은 사실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심리적 고통 및 압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 농촌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밉웨이는 홀로 남은 어머니의 병환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이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당장 쥐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남편의 협조가 없이는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밉웨이의 자살 시도는 단순히 남편과의 “사소한 문제”로 인한 싸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일 년의 시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긴장과 고통의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뜻 보기에 “충동적”으로 보이는 농촌 여성의 자살 행위는 사실상 이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육체적·심리적인 고단함과 오랜 기간 축적된 심리적 압박,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의 부재 속에서 선택되는 행위일 수 있다.

5. 나가며

본 논문은 최근 중국의 높은 농촌 여성의 자살률에 직면하여, 자살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재산을 해치는 행위로서 중국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들 농촌 여성들이 자살을 절망적 상황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재생산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가까운 가족, 친척 내지 친구의 자살 경험이 농촌 여성에게 보다 직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내의 빈번한 자살로 인해 농촌 여성들은 자살을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 농촌의 여성들은 사실상 직간접적인 경험의 반복과 삶 속에

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현의 과정을 통해 자살에 관한 문화적 태도를 학습·재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농촌 여성이 자살에 관해 문화적으로 학습하고 재생산하게 되는 경로를 추적하면서, 연구자는 비언어적·신체적 경험이 문화 습득, 특히 자살에 관한 문화적 지식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촌 여성들이 자살에 관한 문화적 지식을 획득하고 개인의 상황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과정은 무의식적인 체현 과정을 빠뜨리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체현 과정의 중심에는 인간의 인지하고 동시에 반응하는 몸이 놓여 있다. 그러나 몸과 문화 습득, 나아가 문화적 행위의 실천 사이의 관계는 특히 자살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단적인 예로, 왜 비슷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있는 중국 농촌 여성들 중에 어떠한 이들은 자살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식하고 선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는가 하는 개별적 인식과 실천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살 행위를 둘러싼 개인 주체와 몸,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관성은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일: 2010년 4월 17일, 논문심사일: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20일

참고문헌

김광억

1996 “단식과 몸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28: 139-166.

김세건

2000 “‘찌들은 몸’: 사북 지역의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비교문화연구』

10(1): 147-189.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더글라스, 메리(유재분·이훈상 역)

1997 『순수와 위협』, 서울: 현대미학사.

박순영

2006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조선인 신체에 대한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2(2): 57-92.

샐링, 크리스(임인숙 역)

1993 『몸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터너, 브라이언(임인숙 역)

2002 『몸과 사회』, 서울: 몸과 마음.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河北經濟年鑒』, 中國統計出版社.

Blacking, John (ed.)

1977 *Towards an Anthropology of the Body*, London: Academic Press.

Bordo, Susan

1993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utler, Judith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4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53(22): 481-484.
- Cohen, Myron L.
 1993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 *Daedalus* 122(2): 151-170.
- Csordas, Thomas J. (ed.)
 1994 *Embodiment and Experience: The Existential Ground of Culture and Se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kheim, Emile
 1979[1897] *Suicide: A Study of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Firth, Raymond
 2000[1967] “Suicide and Risk-taking in Tikopia Society,” in Roland Littlewood and Simon Dein, eds., *Cultural Psychiatry and Medical Anthropology*, London: The Athlone Press. pp. 314-338.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ume One*, New York: Vintage Books.
- Goffman, Erving
 1979 *Gender Advertisement*, London: Macmillan.
- Grosz, Elizabeth A.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Jeffreys, M. D. W.
 1952 “Samsonic Suicide or Suicide of Revenge among Africans,” *African Studies* 11(3): 118-122.
- Ji, Jianli, Arthur Kleinman, and Anne E. Becker
 2001 “Suicide in Contemporary China: A Review of China’s Distinctive

Suicide Demographics in Their Sociocultural Context,”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9(1): 1-12.

Lee, Hyeon Jung

2009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ester, David

1987 *Suicide as a Learned Behavior*,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Lester, Rebecca

2005 *Jesus in Our Wombs: Embodying Modernity in a Mexican Conv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linowski, Bronislaw

1966[1926]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Paterson: Littlefield, Adams & Co.

Maris, Ronald W., Alan L. Berman, and Morton M. Silverman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Merleau-Ponty, Maurice

2007[1947] “From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in Margaret M. Lock and Judith Farquhar, eds., *Beyond the Body Proper: Reading the Anthropology of Material Lif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hillips, Michael R., Xianyun Li, and Yanping Zhang

2002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The Lancet* 359: 835-840.

Pritchard, C.

1996 “Suici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tegorized by Age and Gender: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Culture on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3: 362-367.

Turner, Terence S.

1980 “The Social Skin,” in Jeremy Cherfas and Roger Lewin, eds.,
Not Work Alone, Beverly Hills: Temple Smith, pp. 112-140.

Weber, Max

1978[1956] *Economy and Society, Volume On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llis, Paul

1977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olf, Margery

1975 “Women and Suicide in China,” in Margery Wolf and Roxane
Witke, eds., *Women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11-141.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The World Health Report 1999*, Geneva: WHO.

Yap, P. M.

1958 *Suicide in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자료〉

China Population Census

2009 accessed through China Data Online (chinadataonline.org).

WHO

2010 “Country Reports and Charts Available” ([http://www.who.int/
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en/index.html](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en/index.html))

〈Key concepts〉: suicide, learning, cultural reproduction, embodiment, rural women, China

Paths of the Cultural Learning and Reproduction about Suicide: The case of Rural Women in China

Hyeon Jung Lee*

How do women in rural China come to learn and reproduce suicide as a possible solution to certain situations though it is a taboo and strictly suppressed behavior in Chinese society? China has recently been singled out for its high rates of suicide, making suicid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health problems in China today. In particular, Chinese women have shown much higher suicide rates than men, primarily due to a plethora of female suicides in rural China. The researcher's anthropological fieldwork study in Hebei villages suggests that the frequency of female suicidal behavior in some rural areas can be even higher than reported statistical data.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more than 60 male and female villagers, including about 20 people who attempted suicide or have a suicide in the family, the researcher has found that there are at

*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least two important paths by which rural women can learn suicide as a socially acceptable behavior to solve seemingly unsolvable problems in their lives. One is through the experience of suicide committed by a close female family, relative, or friend. Examples of Sujing and Lihua demonstrate that a mother's suicide can have a serious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among her children, especially daughters. Despite difference in degree, a close relative or friend's suicide can also affect a woman's attitude toward suicide. The other path by which rural women can learn suicide is through the unconscious process of embodiment. Even though a woman has no personal experience of suicide by significant others, it appears that the frequency of female suicidal behavior in rural communities repeatedly informs her of cultural knowledge that female suicide is a solution to certain situations. The example of Mingwei shows that while she is not aware of how she obtained this cultural knowledge, she nevertheless promptly used it as a method to deal with her immense psychological burden.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proposes that instead of being simply regarded as a corporeal entity with symbolic meaning, an effect of discourse, or a site of cultural inscription, anthropologists should consider the body as the starting point to study culture and self because on the center of cultural learning and reproduction lies the body.